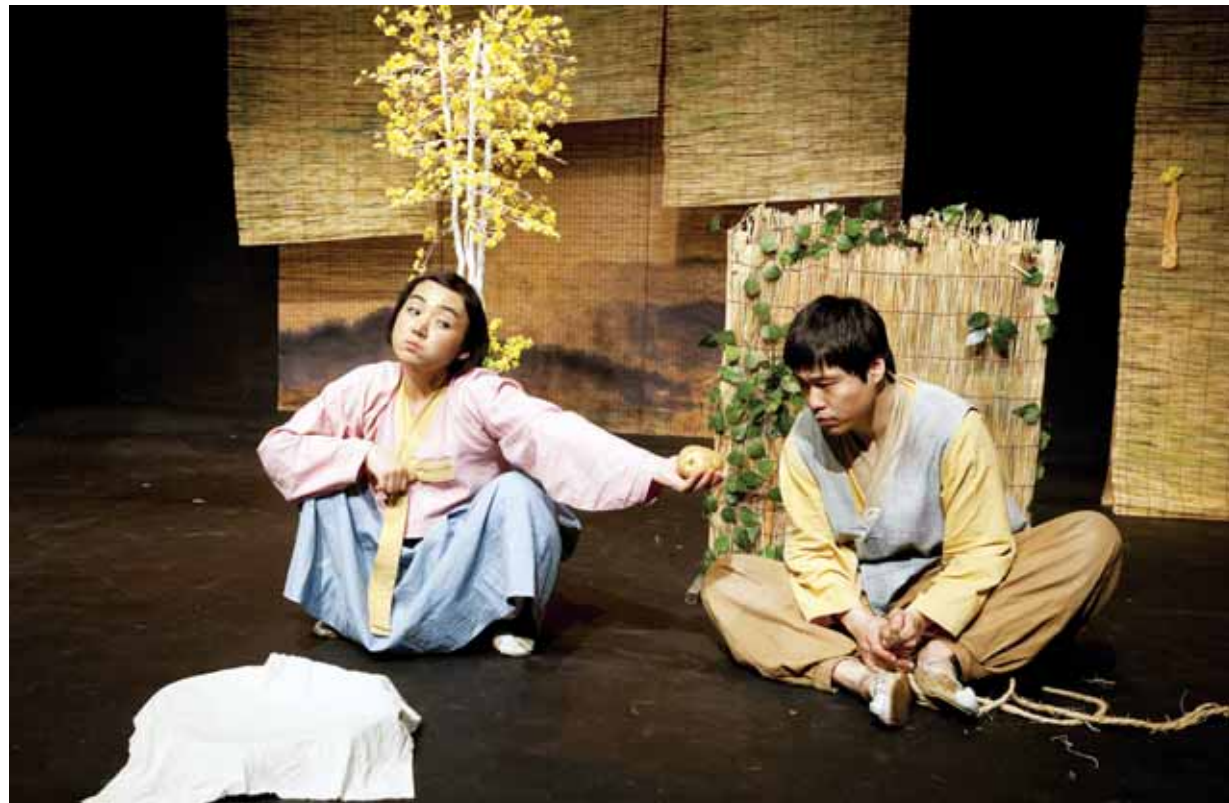


전국 광대들 광주서 놀이판 벌인다

16~18일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

문화전당·민들레 소극장서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극단 참여
마당극·전통춤·어린이극 등 공연

내일 '여는 마당' 개막 행사
풍물놀이, 서예·부도 퍼포먼스



16~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들레 소극장에서 '제27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이 펼쳐진다. 사진은 서울극단 아리랑의 '동백꽃' 공연.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제공>

전국 광대들이 빛고을에 모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판을 펼치고 풍자와 해학의 한마당을 선보인다.

스물 일곱번 째를 맞는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가 16~18일 문화전당과 민들레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사)한국민족극은동협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지난 1988년 처음 시작된 '전국민족극한마당'은 전통 민족극을 계승해 펼치는 야외공연 놀이 축제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다시 마당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14개 극단이 참가해 마당극, 전통춤, 어린이극, 시민 참여극, 대동한마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인다. 주최측은 이번 달초 사전 행사로 무등산 통일대동장승길 행사와 아시아 탈 전시회를 열었다.

공연은 전당 극장 1 야외 무대와 열린마당에 큰 마당과 작은 마당을 열어 진행하며 전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극단 토박이의 민들레 소극장도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16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여는 마당' 개막행사에서는 풍물놀이와 서예 퍼포먼스, 부도 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16일에는 모두 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청주 '예술극장 두레'가 무대에 올리는 '다 그렇지는 않다'(오후 7시·큰마당)는 재주와 옛을 팔며 전국을 도는 '우당탕탕 예술단'이 창단 70주년을 맞아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같은 날(오후 8시) 작은마당에서는 서울 극단 '아리랑'이 '명랑시골 로맨스 연희극'을 표방한 '동백꽃'을 공연한다. 김유정의 동명 소설을 유쾌하게 풀어낸 음악극으로 2012년 서울연극제 자유 참가작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민들레 소극장에서는 광주 극단 토박이의 '오! 금

남식당'(오후 7시)이 공연된다. 식당을 물려줄 새 주인을 뽑기 위한 요리 경연 과정을 통해 광주의 오월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17일에는 대전 '장작집단 쟁이'가 사방팔방 건강한 똥을 찾아 떠나는 좌충우돌 모험담 '황금 똥을 부탁해'(오후 5시 작은마당), '통영오광대'가 탈을 쓰고 노는 탈꾼의 춤과 노래, 대사, 음악을 어우러진 종합공연예술 '통영 오광대'(오후 6시·큰마당)를 공연한다.

또 제주 극단 '한라산'은 농업의 신인 '세경'에 대한 의식과 연주, 놀이를 결합한 제주도 무당굿놀이 '세경놀이'(오후 7시·큰마당)를 무대에 올리며 울산 '극단 걸'은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를 엮은 '소선아! 소선아!'(오후 4시 민들레 소극장)로 관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청송 '나무달 움직임 연구소'의 '물의 기억 퍼포먼스'(오후 8시·큰마당), 부산 '극단 자갈치'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극 '14세 무자'(밤 9시·작은마당), 부산 '창작 탈춤패지 금지'의 한일관계를 풍자한 '소리굿 아구 2'(밤 9시 40분·작은마당)가 공연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영남지역 뒷배기 춤을 새롭게 구성한 즉흥춤 '풍류한마당'(오후 6시·작은마당)과 광주 극단 '신명'의 오월극 '언젠가 봄날엔'(오후 7시·작은마당)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또 대구 '함께 사는 세상'이 장애인인 자립 도전을 그린 '괜찮아! 정숙아'(오후 4시 민들레 소극장)를, 목포 '극단 갯돌'은 독립 운동가 김철의 이야기를 담은 퓨전 마당극 '일강 김철'(오후 8시·큰마당)을 공연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365.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블랙&화이트'... 허달용 개인전

15~28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예술 작업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허달용(광주민예총 회장) 작가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허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15일~28일 '블랙&화이트'를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의제 허백련 일가인 허 작가는 예술가 집안의 기득권을 접어 둔 채 진보적 미술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동안 광주미술인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민족미술인총연합회장, FTA 집행위원장, 스크린쿼터 반대운동본부 등 사회운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나무·버드나무·대나무·난초 등을 통해 시대상을 표현하거나 석양 등을 통해 관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惑世譚民'(혹세무민) 시리즈에 나오는 대나무, 소나무 등은 험한 세상 속 군중들과 닮았다. 풍경을 배제한 채 거침없이 붓을 놀려 강직한 성품을 나타낸다. 또한 가까이 있는 소나무는 시커멓게 그리고 멀리 나무는 연하게 묘사하며 빛과 어둠을 지닌 수목 특성을

보여준다.

'연서' 연작은 역광으로 인해 검은 덩어리로 보이는 인물상이다. 동료 선후배, 스승 등 주변인물들이다. 온통 검은 얼굴은 평소 알지 못하는 지인들의 지열한 삶에 대한 예찬이다.

'穉穉(穉穉)'(적폐정산)은 최근 불타나게 팔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타임지 표지를 그린 작품이다. 노란 리본을 단 채 열게 미소를 띤 문 대통령 사진 밑에는 'MB IS AFRAID' 문구를 적어놓는 길을 걷는다.

'불꺼진 청와대'도 출품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지난해 작업한 이 작품은 어두컴컴한 청와대를 촛불 형상 보름달이 비추며 새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허씨는 개인전 17회를 열었고, 광주민미협창립기념전, 오월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사)민족미술인협회, 연희회,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람'



광주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청송 나무달 움직임 연구소의 '물의 기억 시민퍼포먼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전라도말 자랑대회'

17일...예선 통과 12팀 경연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제7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를 17일 오후 2시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달 예선 심사를 통과한 12팀이 본선에 오른다. 참가자들은 학창시절의 에피소드, 남편 때문에 속앓이했던 기억, 어머니와 딸의 대한 애절한 이야기 등을 전라도말로 풀어낼 예정이다.

'질로 존 상'(대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영만 오진 상'(금상) 2명에게는 각 50만원, '어찌그나 상'(장려상) 3명에게는 30만원, '배꼽 뺨 상'(인기상) 5명에게는 20만원을 수여한다. 또 관람객 가운데 한복을 가장 곱게 차려입고 온 1명을 뽑아 '웃 뺨 상'(상금 10만원)도 증정한다.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경품 응모 행사'와 '전라도말 퀴즈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나는 우리 소리와 밴드 공연도 마련돼 흥을 돋운다. 문의 062-613-5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